



쿠바의 관광산업과 종족관계의 변화*

Cuban Tourism Industry and Changes in Ethnic Relations

주 종택**

Joo, Jong-Taick

요약 : 이 연구는 쿠바의 관광산업의 발전이 쿠바사회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그동안 동질적이었다고 간주되었던 종족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연구를 위한 현지 조사는 쿠바의 트리니다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관광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그리고 비구조화된 집중면접과 참여관찰이 활용되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민박업소와 여행사, 개인식당, 그리고 상점 등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관광객을 상대하는 택시 운전자들, 그리고 히네테로나 히네테라 등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관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구대상이다. 연구자료를 보면 쿠바 관광정책의 변화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종족 간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백인들이 주로 새로운 관광 정책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반면에 가난한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대부분 주변적 일거리나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향후에 궁극적으로 사회적, 종족적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관광분야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작업장에서의 차별이나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쿠바, 관광, 종족성, 인종차별, 종족관계

ABSTRACT : This work analyzes how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dustry in Cuba is affecting Cuban societ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he ethnic relationship, which has been considered homogeneous, is changing. Fieldwork was conducted in Trinidad, Cuba. Structured and unstructured intensive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were used for those engaged in the tourism sector. Main informants for this research were people employed in the tourism industry officially or unofficially such as taxi drivers, jineteros, jineteras, and owners of casas particulares, travel agencies, paladares, and shops. Findings show that changes in Cuban tourism policy and the increase of foreign tourists can lead a new type of socioeconomic gap among ethnic groups. White people with relatively abundant socioeconomic resources can mainly gain economic benefits by using new tourism policies. On the other hand, poor Blacks or Mulatos mostly engage in marginal work or illegal economic activities. If this situation continues, social and ethnic inequality may ultimately increase in the future. To solve this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1035620).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5A2A01035620).

**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e-mail: jtjoo@sch.ac.kr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Industry, Soonchunhyang University.

problem,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ease and resolve discrimination or conflict in the workplace, while at the same time drawing up institutional measures for Blacks and Mulatos to participate in tourism projects.

Keywords : Cuba, Tourism, Ethnicity, Racism, Ethnic relations

I. 서 론

오늘날 쿠바에서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권력에서 물러난 이후에 쿠바는 이전보다 개방적인 사회로 바뀌고 있다. 쿠바사회의 변화의 정도와 과정, 내용, 방식, 결과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쿠바가 개방적인 사회로 달라지는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광산업의 발전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높은 관광 분야의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었던 종족관계와¹⁾ 인종차별의 문제도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의 쿠바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영역이라고 간주되는 관광산업의 발전이 종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쿠바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분석하

는 것이 연구의 주요한 배경이다.

쿠바의 종족관계는 라틴 아메리카나 카리브 지역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유럽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나 쿠바혁명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쿠바는 다른 라틴아메리카나 카리브 국가와는 전혀 다른 종족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다른 라틴아메리카나 카리브 국가에서는 독립 이후에도 백인, 원주민, 메스티소(mestizo)²⁾, 흑인, 몰라토³⁾ 등의 종족집단이 다양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존재하다가, 점차로 메스티소 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독립 이후에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라는 맥락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부분적으로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⁴⁾ 그러나 쿠바에서는 다양한 종족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쿠바의 사회주의 정부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

1) 인간집단을 피부색을 포함한 여러 생물학적 차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인종(race)이고, 여기에 언어, 종교, 의상, 음식, 의례, 생활관습 등 사회문화적 차이를 포함하는 개념이 종족성(ethnicity)이다. 몰라토의 경우에는 백인과 흑인 사이의 혼혈집단으로서 피부색이나 생물학적 특징이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해서 거의 백인에 가깝거나 혹은 흑인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 또한 집단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피부색만이 아니라 산테리아와 같은 종교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다만 종족 갈등이나 종족 차별의 경우에는 인종차별주의(racism)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인종차별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2) 백인과 원주민 사이에 태어난 혼혈 집단

3)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 집단

4) 대표적인 정책이 원주민들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이들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인디헤니즘(Indigenismo)'이다. 인디헤니즘을 이용하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원주민 사회와 원주민의 문화를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Joo, 2002, pp. 203-205; 2005, pp. 246-248).

있다는 근거에서 지금까지 쿠바 사회 내에서 인종차별이나 종족 사이의 갈등 혹은 대립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그동안 사회 내에서 사회경제적 갈등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종족관계가 표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적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으면서, 종족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씩 언급되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쿠바 사회에서 피부색이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종족 사이의 갈등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쿠바의 종족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종족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면 어떤 요소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발생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곤란한 문제로 인해 쿠바 사회의 종족관계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서는 혁명 이후에 공식적으로 종족 간의 차별이나 갈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1990년까지 이에 대한 연구나 논의는 금기로 여겨졌다(De la Fuente, 2011, p. 30). 특히 혁명 직후인 1960년 이후부터 쿠바 정부는 쿠바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De la Fuente 2008, p. 714).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피부색에 따른 차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근래에 늘어나는 해외의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종족 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종족성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쿠바사회의 종족관계의 특성과 변화과정, 그리고 이런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와 배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II. 쿠바의 관광산업과 종족문제

1. 쿠바의 관광산업과 경제적 변화

21세기에 들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도 점차 약화되고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쿠바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편중된 산업구조와 유연하지 못한 '관료주의적 사회주의(Hoffmann, 2016)'로 인해, 쿠바인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일자리도 부족하여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도 매우 낮은 현실에서⁵⁾, 쿠바 정부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자영업을 허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런 시도는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쿠바사회에서 관광산업과 자영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통제되었던 쿠바사회에서 관광산업과 자영업의 확산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먼저 경제적 측면을 보면 관광산업과 자영업은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여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쿠바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이다(Suddaby, 1997, p. 129). 이런 이유로 쿠바혁명 이전부터 북미나 유럽 지역으로부터 꾸준하게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있다(Espino, 2000, p. 360). 쿠바혁명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 단절로 1970년까지는 관광산업이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Padilla, 2003, p. 77), 쿠바 정부의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80년대 이후 해외 관광객의 유입으로 관광산업은 해마다 거의 20% 가까운 성장을 주도하여 쿠바 경제를 되살

5) 쿠바 경제의 현실과 문제, 관광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자영업의 현황과 문제 등에 대해서는 Joo(2014, pp. 64-70; 2017, pp. 64-69, 75-79)를 참조.

리는 핵심적인 분야가 되었다(Cabezas, 2009, p. 60; Espino, 2010, p. 367; Pertierra, 2008, p. 743). 1989년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쿠바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관광산업이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극복하도록 도왔다. 21세기에 들어서 관광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7%로 상승해서 관광과 관련된 산업이 쿠바 경제를 사실상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Alt, 2009, p. 292). 자연스럽게 쿠바를 찾는 해외의 관광객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관광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도 빠르게 상승했다(Anderson, 2014, p. 98; Espino, 2008, p. 130; 2000, p. 362; Pérez-López & Díaz-Briquets, 2011, p. 318; Suddaby, 1997, pp. 123-124). 이렇듯 관광산업의 발전이 고용창출, 소득증대, 소득불균형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경제적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은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Hyun & Cho, 1992, p. 306; Jeong, 2019, p. 52; Kim, 2017, p. 131; Kim & Kim, 1998, p. 168; Lee, 1999, p. 90).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쿠바 정부는 2011년 자영업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정책으로 자영업자들도 다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관광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Anderson, 2014, p. 106; González-Corzo & Justo, 2014, p. 297; Romanò, 2014, p. 482). 한편 쿠바의 실업문제는 경제 위기가 본격화된 20세기 후반부터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1990년 중반부터는 실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40% 정도까지 상승했고, 그 후에도 실업률은 30% 수준을 유지했다(Pertierra, 2008, p. 758). 이렇듯 대학을 졸업해도 직업을 구하기 힘든 현재의 쿠바 실정에

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산업과 자영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급료 수준이 매우 낮은 쿠바사회에서 외국에서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불법 경제행위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McKenna, 2011, p. 289),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관광산업은 다른 부문보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쿠바인들의 소득을 단기간에 증가시키는 데에도 무시하지 못할 기여를 한다. 그래서 호텔이나 민박 등 숙박 관련 업종,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여행사나 가이드, 음식점, 그리고 각종 기념품을 파는 상점 등 합법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종과 더불어, 관광객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히네테로(jinetero)나 히네테라(jinetera)⁶⁾ 등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2. 쿠바의 관광산업과 사회문화적 변화

관광산업과 자영업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쿠바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노력에 따른 별도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관광산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면 노력에 따른 경제적 대가가 분명하게 개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성취동기가 발생하고 있다. 쿠바인들은 과거와는 달리 자신들이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좋은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면,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래

6) 관광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불법적 혹은 공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남자는 히네테로 여자는 히네테라이다. 히네테라의 경우에는 매춘에 관여하기도 한다.

서 고객들과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성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서 책임 의식이 강화되는 등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가 생성되어 사회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Sanchez & Adams, 2008, p. 35; Henken, 2005; Ritter, 2005, pp. 344-347; Rundle, 2001; Vallant, 2001, p. 243). 실제로 쿠바사회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쿠바의 문화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면서 춤과 음악, 종교 등 쿠바의 전통적인 문화요소들이 새롭게 되살아나고 있다(Schmidt, 2016, p. 164).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나 가치관 등이 지속적으로 쿠바에 유입되고 있다. 물론 쿠바 사회주의 정부 입장에서 보면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자본주의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쿠바 사회의 고유한 정체성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로 인해 쿠바 사회가 훨씬 개방적이고 다양한 사회로 바뀌어 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듯 쿠바사회에서 관광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관광산업이 쿠바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에 집중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쿠바의 입장에서 관광산업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관광산업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적 불평등과 더불어 피부색이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종족 간의 갈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관광산업의 확산으로 기존의 종족 간의 차이와 차별이 더욱 고착되거나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논의를 하지 못했

던 종족 문제가 관광산업을 계기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3. 관광산업과 종족 관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이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오히려 종족 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시켜 사회적 분열과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Hodge, 2014, p. 442; Sanchez & Adams, 2008, p. 35). 그동안은 피부색에 따른 약간의 차별이 일상생활에서 존재했지만,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이런 것을 크게 문제로 표현하지 않았다. 사회문화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지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백인들도 노골적인 형태의 인종차별은 할 수 없어서, 종족 관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종족성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Francis & Tannuri-Pianto, 2013, p. 749),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들의 경제적 격차가 커질수록 종족 간의 대립도 커질 수밖에 없다. 흑인과 몰라토들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백인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쿠바 사회주의 체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평등을 상당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사회적 연대나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쿠바의 종족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이후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종족 간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확대되면서 불만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자영업의 허용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마련되면서, 피부색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백인들은 재빨리 변화하는 경제적 상황에 대처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만, 흑인과 몰라토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조사에 의하면 사회구조의 변화로 백인들에 비해 흑인과 몰라토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한다(De la Fuente, 2011, pp. 31-33).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종족 간의 차별과 갈등의 문제가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쿠바에서 인종차별이나 종족 간의 갈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흑인과 몰라토의 비중은 쿠바사회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2012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쿠바의 전체인구 11,167,325명 중에 백인은 64.1%인 7,160,399명, 혼혈인 몰라토는 26.6%인 2,972,882명, 그리고 흑인은 9.3%인 1,034,044명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3이 몰라토나 흑인에 속한다. 그 밖에 아시아인들은 전체 인구의 0.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쿠바의 통계는 매우 부정확하기 때문에⁷⁾, 실제로 흑인과 몰라토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쿠바혁명 직후에는 피부색에 따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들어 인구센서스에서 쿠바인들에게 스스로 어떤 종족에 속하는지를 묻게 되었다. 1981년의 센서스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족을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 2002년부터는 피부색에 따른 종족 구분이 센서스에 포함되었다. 조사자들이 종족성에 대한 별도의 질문 없이 피부색으로 피조사자들의 종족을 구분하게 했다. 어쨌든 통계의 문제를 감안한다고 해도, 상당수의 흑인과 몰라토들이 쿠바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Ⅲ. 연구의 방법과 조사지

1.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

쿠바에서 관광산업의 성장과 종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해외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많으며, 지역사회에서도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지 않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행위가 성행하고 관광 분야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충실한 조사를 실시하는 데 유익하다. 이런 맥락에서 쿠바의 트리니닷(Trinidad)은 이런 조건을 잘 갖추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데 가장 좋은 지역 중의 하나에 속한다. 쿠바에서도 트리니닷은 오래된 식민도시에 해당하며, 그동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적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다. 지역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고 수도인 아바나에서 334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수로 보면 2015년 현재 트리니닷에는 75,600명이 거주하고 있어 소규모 도시에 해당한다. 식민시대에 트리니닷은 스페인의 식민지배의 중심도시로서 흑인 노예노동자를 이용한 대규모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존재했던 지역이라 종족구성에 있어서 흑인과 몰라토의 비중이 높아 종족관계의 변화를 이해하기에 적절하다. 18세기의 식민시대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고, 산테리아(Santería)⁸⁾와 살사(Salsa)⁹⁾ 등 쿠바의 전통적인 흑인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식민시대에는 사탕수수 농장을 비롯한 농업이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었으나, 현재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면서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많다.

7) 쿠바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인구, 건강, 교육 등에 관련된 통계를 조작하기도 한다(Aguirre & Vichot, 1998, p. 118).

8) 식민시대에 흑인 노예노동자들이 가져온 서아프리카의 종교와 가톨릭이 융합되어 형성된 민간신앙

9) 흑인 노예노동자들이 가져온 아프리카의 음악에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음악이 결합된 댄스음악

트리니다트는 1982년의 아바나 다음으로 1988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난 후에, 쿠바의 흑인문화를 경험하려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도시이다. 이 지역은 농업 이외의 별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은 편이라, 백인들뿐 아니라 흑인이나 몰라토들도 관광산업 분야에 관심이 매우 많다. 실제로 쿠바의 개방정책과 더불어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의 수가 근래에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관광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Bye, 2014, p. 43). 한편으로는 그동안 트리니다트 지역에 관한 연구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개인적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충실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2006년 여름에 이어 2008년 여름에 예비조사가 이루어졌고, 2013년에는 ‘관광과 히네테리슴(jineterismo)’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으며, 이어서 2016년에는 ‘관광산업과 감정노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과정에서 트리니다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광관련 업체와 종사자들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구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번 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조사는 2020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실행되었다.

2. 연구방법과 조사대상자의 선정

쿠바는 관광과 종족문제, 인종차별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며, 쿠바인들도 신뢰하지 않는 외부인들을 경계

하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잠재적 제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개인적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더불어 신뢰를 형성하고,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한 후에, 집중면접과 참여관찰을 이용하는 질적 연구방법¹⁰⁾인 현지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사방법이다. 한편으로 트리니다트는 이미 과거에 여러 번 조사했던 지역이어서, 기존의 인간관계를 활용하여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¹¹⁾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해서 조사를 수행했다. 눈덩이표집은 연구대상을 포착하거나 접근하기 어렵고, 잠재적 제보자들이 비협조적인 경우에 유용하기 때문에, 불법 혹은 합법,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용하다.

관광으로 인한 종족관계의 구체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트리니다트 시의 관광부서, 트리니다트 지역의 여행사 조직, 그리고 택시, 숙박업자, 식당 협회 등의 기관과 조직, 그리고 관광산업 종사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소와 여행사, 식당, 그리고 상점 등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관광객을 상대하는 택시 운전사들, 그리고 히네테로나 히네테라 등 비공식적으로 관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트리니다트의 인구 및 경제활동, 관광업 현황, 관광분야 종사자의 수와 그들의 종족성, 관광객의 수와 그들의 행위 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회문화적, 경제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헌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모든 피조사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10) 귀납법을 사용하는 정성적 분석은 언어, 관습, 문화적 차이 등 현저사회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밀접한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적 조사는 조사대상자와 오랜 기간에 걸친 지속적 접촉을 통해 현저사회와 현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신뢰도를 확보한 다음에 라포를 구축하여 집중적인 심층면접을 준비할 수 있다.

11) 조사의 초기에는 소규모의 응답자로 시작하여 이들의 인간관계 활용하여 또 다른 조사대상자들을 파악해서 조사대상자들의 수를 확대하는 조사방법이다. 주로 심층적인 조사결과가 필요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충실한 질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사용된다.

구조화된 면접(structured interview)과 각각의 피조사자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비구조화된 면접(unstructured interview)을 함께 활용하였다. 먼저 의미 있는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추가로 각자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정성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비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비구조화된 면접에서 획득한 자료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분야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관광산업 종사자들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종족관계와 종족 간의 갈등 상황을 파악했다. 다음으로 면접과 참여관찰로 얻어진 질적 자료를 지역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조건, 종족에 따른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경험과 비교하여 해석함으로써, 관광산업과 종족관계에 관한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보다 명확하게 검토하였다.

3. 자료수집과 해석

질적 조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피조사자들의 직접적인 생생한 목소리를 경험적 관찰자료로 적용하여 문제의 본질에 가깝게 가려고 시도했다. 특정 집단의 문제를 대표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면접을 수행한 사람들 가운데 의미 있는 응답을 한 37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집중면접을 실시했다. 그중에 6명이 흑인, 8명이 몰라토이고, 나머지 23명이 백인이다. 37명의 주요 제보자들을 경제활동으로 분류해 보면, 숙박업소 관계자 5명, 여행사 관련 종사자 6명, 식당 관계자 5명, 상점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6명, 관광객을 상대하는 교통수단에 관련된 사람들 5명, 그리고 히네테로나 히네테라 등 비공식적인 관광

종사자 10명이다.

종족관계에 관한 공통적인 질문 이외에 구조화된 면접에 사용된 구체적인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종족성에 따라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백인과 흑인 혹은 몰라토들이 하는 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종족성에 따라 관광산업에서 얻는 소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관광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가?”; “관광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종족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발생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쿠바의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트리니다트의 특징적인 종족 문제는 무엇인가?”;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관광산업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관광산업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종족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관광분야의 경제활동 중에 피부색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관광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피부색과 문화에 따른 종족성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는가?”;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종족관계는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나?”

IV. 쿠바의 종족관계의 역사적 변화

역사적으로 카리브 지역도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식민시대에는 다양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식민시대가 시작되어 유럽의 정복자들이 들어오면서 백인과 원주민들 사이의 이중적 종족관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식민시대의 백인 정복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했다. 게다가 유럽에서 들어온 새로운 전염병인 홍역,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천연두 등에 전혀 면역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원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카리브 지역의 원주민들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했던 정복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금광이 별로 발견되지 않자,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해 생산된 사탕수수 등의 작물을 유럽으로 가져가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질병과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로 원주민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농업노동자가 부족해지자, 서아프리카 지역의 흑인들을 데려와서 노예노동자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까닭으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많은 흑인 노예들이 쿠바와 다른 카리브 지역에 유입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카리브 지역에는 백인과 흑인, 그리고 이들의 혼혈인 몰라토(mulato)로 이루어진 다중적인 종족관계가 형성되었다. 식민시대에 흑인 노예들은 강제노동과 더불어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었고, 흑인과 백인의 차별은 분명하게 존재했다. 카리브 지역 중에서도 쿠바는 대규모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존재했다. 정복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흑인 노예노동자에 대해 가혹행위를 광범위하게 실시했고, 이에 따른 차별이 강화되었다(Safa, 2005, p. 319). 혼혈인 몰라토의 경우에도 노예인 흑인보다는 자유로운 신분을 유지했지만, 백인으로부터 상당한 차별을 받는 존재였다. 결과적으로 식민시대에는 백인들의 지배적인 크레올(creole) 문화와 흑인들의 저항 문화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그러다가 1868년 ‘카를로스 마누엘 데 세스페데스’(Carlos Manuel de Céspedes)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되면서, 흑인들의 지위는 조금씩 개선되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하던 쿠바의 흑인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원주민들과는 달리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억압적인 상태로 힘

든 생활을 영위하던 흑인 노예들은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독립운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Casal, 1979, p. 23). 결과적으로 독립운동 이후에는 쿠바의 많은 흑인들과 몰라토들의 지위가 다소 개선되었다. 이어서 1886년에는 노예제가 폐지되어 흑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졌다.

노예해방과 더불어 흑인들의 생활은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다가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쿠바는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1902년에 미국의 보호국이 되었다. 그 후에는 미국사회의 흑인과 백인의 불평등한 관계가 쿠바에서도 그대로 이어졌고(Safa, 2005, p. 320), 흑인들은 낮은 지위를 점유하며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다. 1959년 부패한 독재자인 ‘풀헨시오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를 무너뜨린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에 의해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종족관계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쿠바혁명 이후에 쿠바의 종족관계는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혁명정부는 국가의 통합을 위해 종족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용납하지 않았다. 종족 간의 차별을 철폐하여 백인, 흑인, 몰라토와 다른 종족들이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카스트로는 백인들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면서, 흑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책을 제시했다(Casal, 1979, p. 5; Wirtz, 2017, p. 61).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흑인들과 몰라토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예를 들어 흑인들이 직업을 갖고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해변이나 공원 등에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사립학교를 없애는 등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평등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다. 또 백인이 아닌 사람들도 정치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편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쿠바사회를 동질화시키려는 ‘물라토화’(mulattoization)로 규정지을 수 있다(Casal, 1979, p. 14). 쿠바인들도 쿠바의 문화를 물라토 문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 종족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주요한 혁명 지도자와 정치경제 엘리트들은 여전히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사회주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쿠바를 떠나는 백인들이 늘어나면서, 백인에 비해 흑인과 물라토의 비율이 조금 상승되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백인이 아닌 사람들의 비율은 1953년에 26.9%에서 1970년에는 40.0%까지 상승했다(Casal, 1979, p. 15). 이런 상황에서도 백인들은 자신들의 집단 내부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등 자신들의 내적 응집력을 강화시켰다(Safa, 2009, p. 48). 그렇기 때문에 종족 간의 대립이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고, 피부색에 따른 편견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한편 쿠바 정부는 흑인이나 물라토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위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관을 설립하지 않았다.

1991년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쿠바에 대한 소련과 동유럽의 경제적 지원이 사실상 종료되어, 쿠바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쿠바에서는 식량과 연료의 부족이 심각한 상태가 되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평화 기간의 특별시기”(El Periodo Especial en Tiempo de Paz)라고 불리는 이 기간 동안 쿠바의 경제는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되고, 그 중에서도 흑인들과 물라토들의 경제적 고통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흑인과 물라토들은 경제 침체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사회주의 정부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흑인과 물라토들은 특히 더 많은 타격을 입었다. 상대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지들로부

터의 송금 소득이 많은 백인들은 흑인과 물라토들에 비하면 경제적 사정이 훨씬 나은 편이었다(Cabezas, 2009, p. 80; De la Fuente, 2008, pp. 714-715). 이렇게 되면서 종족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고, 피부색에 따른 차별도 강화되기 시작했다(Espina Prieto & Rodríguez Ruiz, 2006, p. 53).

V. 종족관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1. 불평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쿠바 사회에서 백인과 흑인이나 물라토 사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러한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거나 강화되기도 한다. 한 조사의 사례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90.9%가 쿠바에서 인종차별이 존재하며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라고 응답했다(Espina Prieto & Rodríguez Ruiz, 2006, p. 50). 조사지의 면접결과도 종족 갈등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흑인과 물라토들은 1명을 제외한 13명이 사회 내에서 갈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응답했다. 백인들은 전체 23명 중에 절반이 조금 넘는 13명이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종족 간의 갈등에 대해 응답을 유보하거나 무관심, 혹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으며, 백인 2명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흑인이나 물라토들이 백인들과 확연하게 대립되는 입장을 취했다. 흑인과 물라토들은 차별의 존재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2/3에 해당하는 10명은 차별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했다. 2명은 잘 모르겠다고 했고, 나머지 2명은 차별은 있지만 자신이 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고 했다. 백인들은 흑인이나 물라토들이 불이

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노골적인 차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단지 3명만 사회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족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종족정체성에 대해서는 흑인과 백인들의 견해가 매우 달랐다. 흑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고유한 아프리카의 문화적 전통이 매우 소중하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전승되어야 한다고 했고, 백인들도 식민 시대부터 이어진 유럽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물라토들의 경우는 다소 모호한 종족정체성을 보였다. 이들은 흑인들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존중해야 하지만 유럽에서 들어온 문화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종족 문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과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의 수가 비슷했다. 백인들은 현재의 종족 정책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흑인이나 물라토들은 평상시에는 종족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는 종족에 따른 갈등이나 차별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종족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2. 사회경제적 조건과 불평등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생활환경이나 주거 지역, 주택의 형태나 규모에서 종족 간의 차이는 분명하게 발견된다. 2005년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도시인 아바나, 산티아고, 그리고 산타 클라라에서 흑인들의 4%만 개인의 토지에서 독립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반면에 흑인들의 98%와 물라토의 69%는 매우 혼잡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한다(De la Fuente, 2011, p. 32). 흑인들이나 물라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주택의 상태도 열악하고 생활을 위한 기본시설도

충분하지 않아 생활하기 불편하다(Espina Prieto & Rodríguez Ruiz, 2006, p. 46). 트리니다드의 경우에도 주택의 상태가 양호한 중심지역은 거의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흑인이나 물라토들은 변두리의 허름한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거시설에서의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흑인들이나 물라토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흑인이나 물라토와 백인 사이에는 일자리와 소득에 있어서 격차가 존재한다. 별다른 인맥과 자본이 부족해서 소득이 많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흑인이나 물라토들은 생계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일자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2000년의 자료를 보면 백인의 70%가 급료가 많지 않은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문에 종사하는 물라토의 비율은 81%, 흑인의 비율은 84%이다(De la Fuente, 2011, p. 32).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평등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또 정부에서 받는 급료가 매우 낮은 현실에서, 별도의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은 대부분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직업이나 소득에 대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나 자료는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나마 최근에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의 백인을 포함해서 흑인이나 물라토들은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자영업 등 공공부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도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백인들의 비율은 흑인이나 물라토들에 비해 세 배 이상 높다. 더욱이 백인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자본을 활용해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흑인이나 물라토들보다 훨씬 유리하다. 자연히 중

족별로 벌어들이는 소득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는 백인들이 좀 더 많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는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더 많다(De la Fuente, 2011, p. 32; Espina Prieto & Rodríguez Ruiz, 2006, p. 47). 일부의 쿠바인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도 너무 낮아서 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흑인과 몰라토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춘이나 호객 행위에 가담하거나 가짜 상품을 파는 등 히네테로나 히네테라가 되고 있다. 이렇듯 일부의 흑인과 몰라토들이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쿠바정부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불법행위에 관여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나 소득의 문제를 비롯하여 실제로 사회 내부에서 불평등한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구할 때 백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부의 주요 기관에서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들이다. 그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사회에서 백인들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기 어렵다.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쿠바에서는 과거처럼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상층계급으로의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특별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종족 사이의 소득 격차는 국가의 공공부문 축소와 더불어 확대될 수밖에 없다(De la Fuente, 2011, p. 33). 쿠바사회에서 종족 간의 불평등은 경제위기가 시작된 1990년대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Espina Prieto & Rodríguez Ruiz, 2006, p. 53). 즉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흑인과 몰라토들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종차별의 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구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사회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3. 송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급료 등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이외에 쿠바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은 해외의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얻어지는 송금이다. 송금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을 거쳐 일정한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송금액의 규모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종족 간에 송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흑인이나 몰라토에 비해 백인들은 월등하게 많은 송금 수입을 얻고 있다. 쿠바혁명 이후에 카스트로 정부는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과거의 엘리트 집단들이 쿠바를 떠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라 많은 부유한 백인들이 미국 등지로 이주했고, 이들은 현재 쿠바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송금을 보내고 있다. 물론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쿠바를 떠나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가려는 흑인이나 몰라토들도 일부 있어서 이들도 본국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송금을 하지만, 백인들에 비해 이들의 수는 매우 적고 송금의 규모도 크지 않다. 실제로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쿠바계 미국인들은 거의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과 2002년 사이의 조사 자료를 보면 쿠바에서 흑인들에 비해 2.5배나 많은 백인들이 송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De la Fuente, 2011, p. 32). 몰라토들도 사정은 흑인들과 비슷하다(Espina Prieto & Rodríguez Ruiz, 2006, p. 48). 송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흑인들은 소득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쿠바로 보내는 송금액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흑인이나

몰라토 가구가 받는 송금의 액수는 백인 가구의 송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Cabezas, 2009, p. 80). 따라서 쿠바의 흑인이나 몰라토 가구들은 해외이주자들이 보내는 송금에 있어서 백인 가구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급료 수준이 매우 낮은 쿠바에서는 급료나 정부의 배급물자에 의존해서는 살 수 없어서, 송금의 존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자영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쿠바인들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품의 종류도 제한적이고 양도 충분하지 않아서, 나머지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그래서 송금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1990년대부터 쿠바에서는 여유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이제 교육 혹은 공산당 혁명조직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며 송금을 보내줄 여력이 있는 가족을 표현하는 '페'(fe: familia en el extranjero)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한다(De la Fuente, 2008, p. 714). 이렇게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불평등한 조건 속에서 생활하는 실정이다. 결국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사라지지 않는다.

VI. 종족관계와 사회문화적 편견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경

험하면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백인들의 사회문화적 편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유색 인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으며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흑인과 몰라토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과 시각은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본질적으로 좋지 않은 인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모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만 받고 국가나 사회에 별다른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항상 불평불만이 많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신뢰하기 어렵고 주어진 책무를 열심히 수행하지 않으며, 폭력적이고 범죄행위에 쉽게 빠진다는 것이 백인들의 생각이다(De la Fuente, 2008, p. 713). 그밖에도 쿠바사회에서는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현명하지 못하고, 지적 수준이 낮으며, 예절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등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 견해가 존재한다(Espina Prieto & Rodríguez Ruiz, 2006, p. 51). 이런 까닭으로 흑인이나 몰라토에 대한 의심과 비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접촉하는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흑인이나 몰라토들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짜 시가를 팔거나, 쿠바인들이 사용하는 일반 페소(CUP: moneda nacional)¹²⁾를 관광객들에게 태환페소(CUC: pesos convertible)¹³⁾라고 속여서 거래하는 흑인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쿠바에서는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돈을 벌기 위해 히네테로나 히네테라 등으로 활동하면서 이들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여 국가와 사회주의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는 흑인이나 몰라토들의 불법 행위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12) 1 CUC = 약 26.5 CUP

13) 1 CUC = 1 USD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외국인 관광객 근처에 있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나, 경찰이 이들에게 접근해 매춘이나 호객꾼이라고 간주해서 이들에게 벌금을 내라고 요구하거나 처벌하기도 한다(Cabezas, 2009, p. 147).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에서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도 이런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조사대상자들은 트리니다 지역의 종족 갈등이 쿠바의 다른 지역과 유사하거나 더 심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흑인과 몰라토들은 이 지역에 식민시대의 노예제도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트리니다의 종족갈등과 인종차별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백인들은 갈등이나 차별이 있지만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리니다 지역에서 피부색이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편견의 정도도 백인과 흑인, 몰라토들 사이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확인되었다. 백인들은 트리니다의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쿠바의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이나 생활수준이 낮아서 예의 바르고 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했다. 그러나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트리니다에서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다양하지 못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일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최근에는 공적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예전보다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생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체면을 무릅쓰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도 무시할 수 없다. 트리니다의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사이에 두고 흑인 택시운전사와 백인 택시 운전사 사이에 승객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흑인 택시운전사는 관광객이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서 택시를 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

다. 나중에 온 백인 운전사는 흑인들은 항상 거짓말만 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관광객을 자기 택시로 끌고 갔다. 백인 관광객도 백인 운전사에게 호의를 보이면서, 흑인 운전사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흑인 운전사는 항상 백인들은 이런 식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흑인 택시운전사는 이런 일은 비밀비재하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다고 불평했다.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정부기관이나 공공부문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심지어 의사나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흑인이나 몰라토들도 직장 내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흑인들은 자신들에게 직장에서 분명하게 직책이 주어지지 않지만, 백인들이 종종 의도적으로 중요한 일을 시키지 않거나 자신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때로는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 때에 자신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또한 대체로 백인 직원들은 흑인이나 몰라토들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최근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 자영업이나 관광업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해도 흑인들에게는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직원으로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자신들이 백인들에 비해 '좋은 용모'(buena presencia)가 결여되었다는 백인들만의 일방적 주장 때문에 취업이 힘들다고 한다(Cabezas, 2009, p. 80). 트리니다의 여행사에는 보통 여러 명의 가이드를 고용하여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그렇지만 흑인이나 몰라토 가이드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10명의 가이드 중에 1명의 흑인 가이드를 두고 있는 어느 여행사 대표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관광 가이드로 흑인을 고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들

은 지식이나 정보 등이 많이 부족하고, 또 외국의 관광객을 상대하는 데 필요한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믿음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대체로 백인 관광객들이 흑인 가이드들을 선호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1명의 흑인 가이드는 거의 흑인 관광객을 상대한다.”

VII. 관광산업의 발전과 종족관계의 변화

1. 관광산업과 종족관계

미국의 제제와 구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쿠바에게 관광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 쿠바는 더 이상 폐쇄적인 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관광산업은 쿠바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임금도 매우 낮은 쿠바의 현실에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대의 쿠바사회에서 관광산업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자영업의 성장 등 여러 방면에서 호의적인 영향을 가져다주고 있다. 관광산업이 잘 활용된다면 고용기회의 창출과 부분적인 실업문제의 해소, 그리고 쿠바인들의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한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던 쿠바인들은 관광산업을 통해 자발적이고 능동적 경제활동, 노력에 따른 경제적 대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 그리고 책임 의식 등을 개발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산업이 기존에 잠재되어 있던 사회주의 쿠바의 여러 가지 문제를 외부로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관광산

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자영업의 허용 등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허용되지 않던 정책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종족 사이의 대립이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에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허용되던 수준을 넘어서는 종족 간의 불평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De la Fuente, 2011, pp. 30-32).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더불어 피부색에 따른 종족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흑인이나 몰라토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적 분할이나 차별화와 함께 재산과 관련된 범죄의 증가, 매춘의 확대, 이념의 약화 같은 현상도 동시에 나타난다(Hodge, 2014, p. 442). 더욱이 관광산업의 확산으로 기존의 종족 간의 차이와 차별이 더욱 고착되거나 확대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관광산업의 성장이 종족관계나 사회적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질문에 백인은 1/3 정도인 7명,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4/5 정도인 12명이 분명한 영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나머지는 별 영향이 없거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했다. 이것을 보면 백인에 비해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관광산업으로 인한 종족관계의 변화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족에 따라 관광분야에서 담당하는 경제활동의 차이에 대해서는 흑인과 백인 모두 종족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백인들은 흑인이나 몰라토들의 의지와 자질, 성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지적했고,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경제활동에 따른 종족 간의 소득의 차이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백인들은 월 소득이 400 CUC에서 3,300 CUC 정도 된다고 응답했으며, 참여

하는 경제활동의 성격에 따라 변화의 폭이 컸다. 여행사나 민박, 식당 등이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는 분야에 속했다. 평균적으로는 1,500 CUC를 벌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일자리의 급료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한 달에 50 CUC에서 200 정도를 번다고 하여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균적으로 이들은 100 CUC 내외의 수입을 얻고 있다.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자신들이 백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도 불안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했다.

관광산업에 참여하기 이전의 직업과 현재의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종족에 따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거의 모든 조사 대상자들이 현재 자신들이 참여하는 관광분야의 경제활동이 이전의 직업보다 만족스럽다고 대답했다. 현재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서 장점이 많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보다 미래에 훨씬 좋은 경제적 기회가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다만 히네테로나 히네테라들은 자신들이 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일거리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다소 불만인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자들의 기존의 직업과 현재의 관광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종족 간의 협력 문제를 살펴보면 백인은 1/3 정도가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나머지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4/5 정도가 감소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관광과 관련된 경제활동에서 백인과 다른 종족 사이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관광산업과 종족간의 불평등

심층적 집중면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산업

의 새로운 변화가 종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다음의 사례가 관광산업에서의 종족 간의 차이를 설명해준다.

“1981년에 구 소련에서 제작한 라다로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 백인 차주로부터 차량을 빌려서 3년 동안 운전하고 있다. 차가 오래되었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좋지 않은 상태이다. 차 바닥에 구멍이 나 있고 시트도 거의 부서져서 앉기도 불편하다. 매연도 심해서 건강이 걱정된다. 차주들이 좋은 차는 백인들에게만 맡기기 때문에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좋은 차를 운전하기는 어렵다. 목적지가 같을 사람들이 함께 타는 합승택시로 영업하며 쿠바사람들을 주로 태운다. 차가 낡고 소리도 요란해서 관광객들은 가끔 탄다. 공식 택시가 부족한 심야시간에 호텔에 가서 호텔직원들의 도움으로 관광객을 배정받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돈을 받는다. 호텔직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 CUC를 지불한다. 그런 일도 백인들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우리들은 차를 기다려야 한다. 한 달에 적어도 100 CUC는 벌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3배 이상의 수입이 되어 그럭저럭 만족한다. 그래도 큰돈을 만질 수는 없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다.”(Felipe, 53세, 몰라토, 택시운전자)

“공식 택시로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한다. 소유하고 있는 차는 올드카로서 55년에 제작된 포드이다. 원래 할아버지가 타던 것을 유산으로 부모가 물려받았다. 부모가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운전을 시작했다. 그동안 관리를 잘하고 내부와 외부를 다 개조해서 현재 가격은 약 4만 CUC 정도 된다. 세금이 한 달에 700 CUC이고, 운행에 필

요한 휘발유 1리터에 1 CUC 이상이어서 상당한 부담이 된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엔진을 구입하여 내 차의 엔진을 교체하는 데 4,000 CUC가 들었다. 한 달에 500 CUC 이상을 벌어서 수입이 좋은 편이지만 세금과 차량 수리비 등 유지비가 많이 들어 문제가 된다. 그래도 필요한 목돈은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이 보내는 송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서 흑인이나 몰라토들보다는 형편이 좋은 편이다”(Rogelio, 46세, 백인, 택시운전사).

“트리니다트의 중심지에서 10년 전부터 마차(coche colonial)를 운행한다. 부모가 운영하던 농장에서 기르던 말을 이용해서 영업한다. 말 한 마리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같이 마차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도 부모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정부가 지정해주는 공공부문의 직장을 다니지 않고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어 좋다. 관광객이 오면 한 시간에 20 CUC를 받고 마차로 트리니다트의 시가지를 돌아본다. 관광객의 수가 많으면 조금 더 받는다. 한 달에 적어도 200 CUC는 벌 수 있고, 또 빌려준 말 한 마리의 임대료로 월 100 CUC를 받아서 그런대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도 내가 백인이라서 시내 중심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허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가진 재산이 거의 없어서 이런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마차를 모는 것은 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돈을 모아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다른 사업을 해볼 예정이다”(Vicente, 43세, 백인, 마차 운영).

관광 부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도 흑인이나 몰라토들에게 불리하다. 흑인과 몰라토들은 경제적, 사회적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관광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

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흑인들과 몰라토들은 자본, 주거지, 사회적 네트워크 등에서 백인들보다 월등하게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관광산업과 관련된 자영업이 허용되면서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해외의 친척이나 친지들이 보내는 송금 수입이 많은 백인들은 이런 자본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반면에 해외에서 오는 송금 수입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적은 액수의 송금을 얻는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관광산업에 새롭게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다. 흑인과 백인의 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해외에서의 송금의 격차는 매우 크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수익성이 좋은 관광 부문에 투자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 교사를 하다가 관광 분야에서 일을 하면 돈을 번다고 해서, 2015년부터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상점을 빌리고 인테리어도 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데 약 2만 CUC가 들었다. 그동안 모아 놓은 돈과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미국에서 보내준 돈으로 충당했다. 허가를 얻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아서 인맥을 동원해서 2년 만에 얻었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물건도 많이 팔릴 것이지만 원래의 기대보다 못하다. 그래도 교사를 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아서 나름대로 만족한다. 백인 직원 1명을 고용하고 있다. 흑인이나 몰라토보다는 용모가 단정하고 믿을 수 있어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가끔 히네테로들이 관광객을 가게로 데려오면 관광객이 구매한 금액을 고려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다. 돈을 더 벌면 가게도 확장하고 관광객을 위한 다른 사업도 고려하고 있다”(Marisol, 39세, 백인, 기념품 상점 운영).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2016년

부터 여행사를 하고 있다. 아는 사람이 운영하던 것을 넘겨받았다. 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2만 5천 CUC를 주고 인수했다. 미국에 가 있는 친척들로부터 송금을 지원받아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했다. 여행사를 유지하려면 정부관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는데 관료주의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세금도 많이 내야 하지만 이것저것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투어를 제공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교통편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수입원이다. 그밖에 항공권도 취급한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과 가이드를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함께 일하고 있다. 직원 중에 흑인은 1명이 있다. 처음에는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된다는 판단에서 흑인과 몰라토들을 여러 명 고용했었는데,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백인들로 교체했다. 흑인들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부정행위를 자주 저지르며, 별다른 이유 없이 쉽게 그만 둔다.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흑인들은 많지만, 실제 고용을 해도 수익성을 높이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흔하다”(Brisa, 51세, 백인, 여행사 운영).

또한 주거지도 흑인과 몰라토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 형성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돈을 벌기가 용이하지 않다. 관광객을 상대로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카사 파르티쿨라르’(casa particular)¹⁴⁾이나 ‘팔라다르’(paladar)¹⁵⁾인 데, 이런 경우는 주거지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심 지역에 있어야 가능하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역사지구나 구도심, 그리고 중심지는 비교적 부유한 지역으로 거의 백인들이 거주한다. 대다수의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매우 작은 열악한 주택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대부분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거지역에서 한 집에 많은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형편이라 자신의 집을 관광활동에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나 식당, 숙박업소, 상점 등 외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인이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거의 백인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쿠바에서는 대부분의 관광 관련 일자리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배되기 때문에, 백인들에 비해 인맥이 빈약한 흑인들이나 몰라토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게다가 각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백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대단히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한다고 해도 주요한 소득이 높은 관광산업 분야는 백인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여행사, 상점 등의 자영업, 민박이나 개인 식당 등 거의 대부분의 경제영역을 백인들이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불법으로 식당을 20년 정도 운영하다가 3년 전부터 팔라다르 허가를 얻었다. 불법으로 식당을 할 때에는 돈을 벌기는 해도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많았다. 수시로 경찰이나 당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안정적으로 손님을 받기 어려웠다. 불법식당을 해서 적립한 돈으로 팔라다르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보내준 돈도 큰 도움이 되었다. 쿠바에서는 식자재 등 식당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한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서 불안하다. 그래서 적법하지 않은 유통경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식당의

14) 개인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 자신이 소유한 집의 방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민박과 유사.

15) 개인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 운영하는 개인 식당.

위치가 중심지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서 손님을 유치하려면 히네테로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관광객 한 명을 데려 오면 1 CUC를 수수료로 준다. 히네테로들은 모두 흑인들이라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모두 한 동네에서 오래 같이 살아서 큰 문제는 없다”(Armando, 55세, 백인, 식당 운영).

“카사 파르티쿨라르를 운영하고 있다. 15년 정도 운영했는데, 정부에서 허가받은 방 수보다 많은 방을 관광객에게 제공한다. 세금이 많아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수입도 적지 않다. 관광객이 넘쳐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른 카사나 카사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가정집에도 관광객을 소개해준다. 그러면 부수입이 생겨서 좋다. 예전에는 트리니타에 카사가 별로 많지 않아서 수익이 좋았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카사가 생겨서 경쟁이 치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지만 한 달에 평균적으로 2,000 CUC는 벌고 있다. 현재의 카사가 관광객이 많이 도착하는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초기에는 히네테로들에게 많이 의존했었다. 그러다 보니 히네테로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해외의 관광객들과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히네테로들과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다. 이런 사정을 히네테로들도 잘 알아서 예전보다는 문제를 덜 일으킨다. 물론 지금도 히네테로들이 관광객을 데리고 오면 방 하나에 하루에 1 CUC의 수수료를 준다”(Mauricio, 61세, 백인, 민박 운영).

결국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관광산업으로 인한 큰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단지 소수의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낮은 분야에서 활동한다.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관광산업 분야에서 백인 사업자들을 위

해 호객행위를 하거나 불법적인 영업에 부분적으로 가담하는 등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일에 주로 종사한다. 혹은 관광객들을 위해 살사 춤을 추거나 연주를 하는 등 관광활동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나머지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히네테로나 히네테라 등 불법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지 않은 소득을 얻을 뿐이다. ‘쿠바 인류학 센터’(Centro de Antropología de Cuba)의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전체 관광산업 종사자 중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가 되지 않는다(De la Fuente, 2008, p. 715). 게다가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흑인들이 보수가 많은 관리자의 지위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다(Sanchez & Adams, 2008, p. 35). 한편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외모나 교육수준, 생활방식 등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기도 한다(Fernandes, 2003, p. 361). 더욱이 주요한 관광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익성이 좋은 분야에서는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쿠바에서는 관광산업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흑인들의 독특한 문화인 음악, 춤, 종교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해외의 관광객들에게 이국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Facio, Toro-Morn, & Roschelle, 2004, p. 124; Schmidt, 2016, p. 164), 실제로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얻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돈을 벌기 위해 히네테로나 히네테라 등 관광 분야에서 불법적인 경제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종차별이 극심해지고 흑인에 대한 편견이 강화되고 있다. 다음의 사례들이 관광산업에서의 종족관계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청소 일을 했다. 당시에는 열심히 일을 해도 월 급여가 20 CUC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먹고 살 수가 없었다. 7년 전부터 이웃의

친구들과 함께 히네테로 일에 뛰어들었다.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카사나 팔라다르 등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살사 댄스를 가르쳐 주는 교습소에 데리고 가기도 한다. 보통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에 관광객들을 데리고 가지만, 관광객이 원하면 종종 합법적인 상점도 데리고 간다. 어디를 데리고 가도 수수료는 있는데, 아무래도 불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열심히 활동하고 운이 좋으면 한 달에 50 CUC까지 벌 수 있다. 물론 이런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려면 백인 상점 주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백인들의 관광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 때문에 비난을 받고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상점 주인들은 가끔 흑인이나 몰라토들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될 경우가 있다. 심지어 나쁜 백인 상점 주인들은 흑인 히네테로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 그래서 백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다”(Leandro, 29세, 흑인, 히네테로).

“트리니다트의 중심지인 플라사 마요르(Plaza Mayor)나 카사 델라 무시카(Casa de la Música) 근처에서 관광객에게 접근해서 살사(salsa) 댄스를 가르쳐 준다. 관광객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중심지 근처의 공터에서 가르치기도 한다. 주로 개인이나 소규모의 관광객을 상대한다. 단체 관광객은 여행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한 팀당 한 시간에 20 CUC를 받는데, 보통 1주에 2번이나 3번 정도 할 수 있다. 살사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술과 음료, 음식을 제공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한 달에 100 CUC 정도 버는 실정이다. 흑인들의 일치고는 보수가 많은 편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일이어서 좋다. 백인들이나 경찰들은 우리가 관광객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하지 않는지 항상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을 상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벌금도 많이 내서 어떤 달에는 버는 돈보다 벌금 액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차별을 당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Veronica, 33세, 흑인, 살사 강사).

쿠바의 관광정책의 변화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새로운 종족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초래했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 아래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수립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소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쿠바 사회의 통제를 피하면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쿠바사회에서 자영업의 허용으로 경제활동의 자유화가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이런 변화로 많은 종류의 상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흑인이나 몰라토들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영업을 하기 어렵다. 기껏해야 영세한 규모로 가난한 쿠바인들을 상대로 거리에서 과일이나 빵, 피자, 핫도그, 야채 등을 파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흑인들의 상업활동이 백인 상점과 경쟁 관계에 놓일 경우에는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백인 상점 주인들은 경찰을 불러 흑인이나 몰라토 상인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결국 기존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해치고 빈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VIII. 결 론

쿠바 혁명 이후 쿠바에서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인종

차별이 실질적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쿠바사회에서 종족 사이의 갈등이나 대립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종족에 따른 갈등이나 대립, 혹은 인종차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런 문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고, 또 쿠바 정부에서는 종족성이나 종족관계를 논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이나 피부색의 문제를 언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사회 내에서 일상생활과 일상적 담론에서 피부색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고, 잠재된 형태로 남아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공식적인 분야에서 차별적인 언행은 자제하지만 갈등이 발생하거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에는 피부색을 둘러싼 문제가 표출된다. 즉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상이하게 종족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의 인종차별은 없지만,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인종차별은 존재한다.

일상생활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피부색이나 문화에 따른 차별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형성하며, 사실상 흑인과 몰라토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물론 차별을 한다고 해서 백인들이 흑인이나 몰라토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지는 못한다.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종족 간의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쿠바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국가가 개인들의 생계를 완전하게 책임지지 못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생계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종족에 따른 차이가 뚜렷해지면 갈등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소지는 충분하다. 앞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기존의 종족 간의 경제적 차

이가 더욱 확대되거나 고착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관광산업의 확산으로 종족에 바탕을 둔 차이나 차별이 뚜렷해지면서 문제가 더욱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종차별 등 종족 문제가 표출될 것이다. 관광산업과 자영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고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쿠바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주의의 평등 이념을 내세우며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관광산업의 등장이 이러한 동질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쿠바의 관광산업과 종족관계의 관계는 유사한 종족구성을 보이고 있는 인근의 다른 카리브 지역의 국가와도 매우 상이하다. 카리브 지역의 리조트는 해외의 다국적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운영되며 현지인들은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쿠바는 리조트나 호텔, 식당 등도 국영기업 중심이고 종업원들은 국가에서 정해진 임금을 받는다. 현재는 쿠바에서도 제한된 형태이지만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립하여 합작형태로 해외투자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또한 카리브 지역에서는 흑인이나 몰라토 등 현지인들도 소규모의 숙박업소나 식당,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쿠바와는 많이 다르다. 카리브 지역에서도 인종차별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쿠바에서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보다 은밀하게 표현되며, 국가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정책적 지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관광산업의 등장으로 인종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불평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아직도 쿠바사회에서는 종족간의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

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가 반사회적이고 반혁명적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상생활과 일상적 담론에서 차별은 존재하고, 사회 내부에서 피부색에 따른 편견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종족 사이에 차별적 말과 행동은 자제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흑인 혹은 몰라토와 백인과의 소득격차와 해외에서의 송금의 격차가 어느 정도는 존재했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등장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경제행위와 소득 형태를 보여준다. 백인들이 주도적으로 관광산업을 이끌고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종족 간의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쿠바사회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은 경제적 기회를 확충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도 해외에서 온 관광객의 증가는 문화교류를 증진시켜 쿠바사회가 개방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 다만 별다른 정책적 보완 없이 자영업을 허용하면서 흑인과 몰라토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기회나 소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새로운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경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체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확인하고,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관광분야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작업장에서의 차별이나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향후의 연구에서는 관광산업 분야에서 종족 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쿠바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None.

*이 논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없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Aguirre, B. E., & Vichot, R. J. (1998). The reliability of Cuba's educational statistic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42(2), 118-138.
- Alt, R. (2009). Cuban Tourism and its effects on the import sector. *Cuba in Transition*, 19, 292-298.
- Anderson, T. (2014). The "Cuban model" and Its microeconom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41(4), 91-112.
- Cabezas, A. L. (2009). *Economies of desire: Sex and tourism in Cuba and the Dominican Republic*.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Casal, L. (1979). *Revolution and race: Blacks in contemporary Cuba* (Vol. 39). Wilson Center, Latin American Program.
- De la Fuente, A. (2008). The new Afro-Cuban cultural movement and the debate on race in contemporary Cub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40(4), 697-720.
- _____ (2011). Race and income inequality in contemporary Cuba.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44(4), 30-33.
- Espina Prieto, R. & Rodríguez Ruiz, P. (2006). Raza y desigualdad en la Cuba actual. *Temas*, 45(47), 78-92.

- Espino, M. D. (2000). Cuban tourism during the special period. *Cuba in Transition*, 10, 360-373.
- _____ (2008). International tourism in Cuba: An update. *Cuba in Transition*, 18, 130-137.
- _____ (2010). The Cuban tourism sector: A note on performance in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Cuba in Transition*, 20, 364-369.
- Facio, E., Toro-Morn, M., & Roschelle, A. R. (2004). Tourism, gender, and globalization: Tourism in Cuba during the special period. *Transnational Law & Contemporary Problems*, 14(1), 119-142.
- Fernandes, S. (2003). Island paradise, revolutionary Utopia or hustler's haven?: Consumerism and socialism in contemporary Cuban raps?. *Journal of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12(3), 359-375.
- Francis, A. M., & Tannuri-Pianto, M. (2013). Endogenous race in Brazil: Affirmative action and the construction of racial identity among young adult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61(4), 731-753.
- González-Corzo, M. A., & Justo, O. (2014). Self-employment in Cuba since the VI party congress. *Cuba in Transition*, 24, 297-302.
- Henken, T. (2005). Entrepreneurship, informality, and the second economy: Cuba's underground economy in comparative perspective. *Cuba in Transition*, 15, 360-375.
- Hodge, G. D. (2014). 'Dangerous' youth: Tourism space, gender performance, and the policing of Havana street hustlers. *The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Anthropology*, 19(3), 441-472.
- Hoffmann, B. (2016). Bureaucratic socialism in reform mode: The changing politics of Cuba's post-fidel era. *Third World Quarterly*, 37(9), 1730-1744.
- Hyun, J. K., & Cho, B. H. (1992). An analysis of tourism's economic impacts: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Tourism Sciences*, 16(1), 305-316.
- Jeong, J. Y. (2019). Critical evaluation of fairness of economic impact analysis reports: Focusing on economic impact studies of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the pres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3(5), 49-68. <http://dx.doi.org/10.17086/JTS.2019.43.5.49>.
- Kim, J. H. (2017). The effect of tourism development on mitigating urban-rural income inequality: A comparison of differences among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of China.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1(8), 121-135. <http://dx.doi.org/10.17086/JTS.2017.41.8.121>.
- Kim, K. H., & Kim, S. H. (1998). Economic impacts of tourism in a regional context: An input-output analysis for the Kyongju area.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2(1), 151-171.
- Lee, C. K. (1999). The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dustry associated with hosting of the 2002 World Cup Korea: An input-output analysi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2(3), 73-92.
- McKenna, E. F. (2011). Cuba's capitalism: Tourists' experiences with the Cuban economy. *Cuba in Transition*, 21, 283-291.
- Joo, J. T. (2002). The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meanings of indigenous ethnic

- identity in Mexico.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35(1), 201-226.
- _____ (2005). Indigenous policy in Mexico and ethnicity: Relationship between mestizo and indígena.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18(4), 237-270.
- _____ (2014). Tourism and jineterismo in Cuba: The conjunction of capitalism and socialism.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7(4), 57-89.
- _____ (2017). Emotional labor and economies of intimacy in Cuban tourism.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30(4), 63-95.
- Padilla, A. (2003). The tourism industry in the Caribbean after Castro. *Cuba in Transition*, 13, 77-98.
- Pérez-López, J. & Díaz-Briquets, S. (2011). The diaspora and Cuba's tourism sector. *Cuba in Transition*, 21, 314-325.
- Pertierra, A. C.. (2008). En casa: Women and household in post-Soviet Cub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40(4), 743-767.
- Ritter, A. (2005). Survival strategies and economic illegalities in Cuba. *Cuba in Transition*, 15, 342-359.
- Romanò, S. (2014). Personal networks and party affiliation in status attainment processes in Cuba: How do individuals end up in economically profitable positions in emergent sectors?. *Cuba in Transition*, 24, 482-493.
- Rundle, M. L. B. (2001). Tourism, social change, and jineterismo in contemporary Cuba. *The Society for Caribbean Studies Annual Conference Papers*, 1-12.
- Safa, H. (2005). The matrifocal family and patriarchal ideology in Cuba and the Caribbean. *Journal of Latin American Anthropology*, 10(2), 314-338.
- _____ (2009). Hierarchies and household change in postrevolutionary Cub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36(1), 42-52.
- Sanchez, P. M. & Adams, K. M. (2008). The Janus-faced character of tourism in Cuba. *Annals of Tourism Research*, 35(1), 27-46.
- Schmidt, J. D. (2016). The antidote to wall street?: Cultural and economic mobilizations of Afro-Cuban religion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43(3), 163-185.
- Suddaby, C. (1997). Cuba's tourism industry. *Cuba in Transition*, 7, 123-130.
- Vallant, A. (2001). I am not a jinetero.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4(2), 239-254.
- Wirtz, K. (2017). Mobilizations of race, place, and history in Santiago de Cuba's carnivalesque. *American Anthropologist*, 119(1), 58-72.

Received June 24, 2020

Revised August 18, 2020

Accepted September 10, 2020